

# An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Self-Identity to School Adaptation

Kap Lyong park\*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identity and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tarting from necessity of empirical research considering insufficient preceding research.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study implemented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factors of self-identity and school adaptation. As a result, factors of self-identity implies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regulations, while factors of school adaptation partially have an effect on school class and relations with a teacher and friend. Based on the result of verification, this study emphasizes teachers' effort as well as comprehensive and practical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to help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establish the right self-identity for settling into school life. Moreo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is presented.

▶ Keyword : international family, immigrant women' children, self-identity,

## I . Introduction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그들의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의 정체성 정립에 혼란이 오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나라와의 배우자와 혼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정립에 부정적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

이들을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게 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발생한다. 이들은 오늘날 다문화 사회 내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그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다수 집단의 차별로 인하여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겪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는 일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언어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많은 정체성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집단따돌림 등의 피해자가 되는 등의 갈등으로 더

욱 심화된다. 이들이 정체성 정립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적절한 자아를 갖게 됨으로써 일탈적인 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사회에 대한 부적응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2].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 혼란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학교 부적응, 따돌림, 편견과 차별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3]. 즉 학교에서 친구와의 의사전달의 문제와 집단 따돌림, 성적 부진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모의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정체감에 따라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학교생활의 부적응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이 학생들이 자신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학생 개인의 발전과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4].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신혜정, 2007; 이중우, 2010; 리우 페이페이, 2013)[5][6][7] 등에 불과하여

---

• First Author: Kap Lyong Park, Corresponding Author: Kap Lyong Park  
\*Kap Lyong Park(pgl113@hanmail.net), Dept. of mp-officials, SongWon University  
• Received: 2015. 12. 30, Revised: 2016. 01. 11, Accepted: 2016. 03. 15.  
• This study(A201523)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songwon university.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와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먼저, 이 연구의 내용적인 범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배경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2015년 11월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중학생 자녀들을 분석대상의 단위로 선정하였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The Notion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다문화가정’이란 용어는 2003년 건강시민연대를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내국인과의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다문화가정 2세’란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면서 보편화되었다[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5년 다문화가정 학생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보다 18%(14,730명)가 증가한 82,536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학생 1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Table 1. The Annual Number of Elementary-Middle-High School Multicultural Family Student

연 도	2012	2013	2014	2015
학생수(명)	46,945	55,780	67,806	82,536
전체학생대비 비율(%)	0.70	0.90	1.10	1.40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5. 12. 1) Press Release

### 2. Self-identity and School Adaptation

정체성이란 자신이 판단했을 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기초로 하여 개인들은 그

들에게 부여된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체성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정되며, 일관성과 자기통합성을 유지하려는 심리적인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9].

따라서 자아정체성은 개인 스스로의 행태를 결정지우는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이기 때문에 원만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고 할 경우에는 자아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기에 형성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공동체 사회에 대한 적응수준을 높여 줄 수 있고 자아실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미래의 성인기를 원만하게 대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0].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이란 “다문화가정 아동이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습활동, 그리고 교칙준수, 학교행사 등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생활에서 야기되는 상황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학교 내의 제반요구에 균형 있게 조절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스스로가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수행할 수 없는 일에 따라서 대처하고 노력하는 학생으로서의 학습자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11].

또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사회생활과 밀접한 생활영역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즉 학교친구, 가족 각 영역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것이고 교사 또는 부가가 평정한 객관적인 만족감,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는 물론이고, 타인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인관계의 능력,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만족감을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12].

### 3.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Self-identity

먼저, 최문성·김순자(2009)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피부색에 따른 차별, 언어발달의 지체,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낮은 부모소득에 따른 경제적 요인, 가정해체로 인한 불안감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기표현을 어렵게 하며, 사회적 위축을 가져와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가져 오게 되는 요인들로 제시하였다[13].

반면에 박진우(2015)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정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비슷하게, 부모,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과 외국인 모의 역할, 한국어 실력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학업동기, 외모만족도 등이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는 다른 요인들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14].

### 4. Consideration of Preceding Research

선행연구의 고찰과 관련하여서는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결혼이주 여성 자녀의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혜정(2007)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실력,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인 친구지지와 학교적응의 구성요소인 교우관계,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관계,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중우(2010)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자아정체성 및 학교적응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은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아정체성은 학교적응의 구성요인 중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학교적응은 자아정체성의 하위변인 중 독특성과 사회적응력 그리고 사회성의 순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리우 페이페이(2013)는 자아정체성, 가족응집성,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 III. Methodology of the Research

#### 1. Subject of Study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중학생 자녀들 150명을 분석대상의 단위로 선정하여,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총 150의 설문지 중 137부의 설문지가 회수됨으로써 회수율은 91.3%였는데, 회수된 설문지 중 활용이 부적합한 11부를 제외한 12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에 따른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2명(41.2%), 여학생이 74명(58.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성적분포는 ‘하’는 12명(9.52%), ‘중’ 103명(81.7%), ‘상’은 11명(8.78%)으로 나타났는데, 성적이 보통인 학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 2. Measurement

자아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중우(2010)가 자아정체성의 구성요인을 독특성, 미래계획, 사회성, 자기수용, 자율성, 사회적응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설문문항들을 활

용하였다[18]. 자아정체성은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의 결과 독특성( $\alpha=.72$ ), 미래계획( $\alpha=.69$ ), 사회성( $\alpha=.77$ ), 자기수용( $\alpha=.80$ ), 자율성( $\alpha=.73$ ), 사회적응력( $\alpha=.82$ )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김은미(2012)가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설문문항들을 활용하였다[19]. 학교생활적응은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의 결과 교사관계( $\alpha=.80$ ), 교우관계( $\alpha=.70$ ), 학교수업( $\alpha=.75$ ), 학교규칙( $\alpha=.69$ )으로 나타났다.

### 3. Hypothesis

다문화가정의 중학생 자녀의 자아정체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자아정체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자아정체성은 교사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아정체성은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아정체성은 학교수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아정체성은 학교규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V. Hypothesis Testing

#### 1. Self-identity and Relation of Teacher

“자아정체성은 교사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  $p<0.001$  유의수준에서 사회적응력( $\beta=.205$ ,  $t=4.228$ ), 자기수용( $\beta=.180$ ,  $t=3.407$ ), 사회성( $\beta=.175$ ,  $t=3.375$ ), 미래계획( $\beta=.140$ ,  $t=2.899$ )의 순으로 교사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특성( $\beta=.093$ ,  $t=1.098$ )과 자율성( $\beta=.098$ ,  $t=1.199$ )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채택 되었다.

Table 2. Self-identity and Relation of Teacher

독립변수	종속변수	$\beta$	t	p
독특성	교사관계	.093	1.098	.075
미래계획		.140	2.899	.000***
사회성		.175	3.375	.000***
자기수용		.180	3.407	.000***
자율성		.098	1.199	.127
사회적응력		.205	4.228	.000***
수정된 R <sup>2</sup> : .351 F: 22.739				

\*\*\*p&lt;0.001

## 2. Self-identity and Relation of Friend

“자아정체성은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에 대한 검증결과, p<0.001 유의수준에서 사회성( $\beta=.185$ , t=3.717), 자율성( $\beta=.159$ , t=3.415), 사회적응력( $\beta=.141$ , t=3.013), 자기수용( $\beta=.136$ , t=2.859), 미래계획( $\beta=.108$ , t=2.111)의 순으로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특성( $\beta=.055$ , t=.087)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부분채택 되었다.

Table 3. Self-identity and Relation of Friend

독립변수	종속변수	$\beta$	t	p
독특성	교우관계	.055	.087	.082
미래계획		.108	2.111	.000***
사회성		.185	3.717	.000***
자기수용		.136	2.859	.000***
자율성		.159	3.415	.000***
사회적응력		.141	3.013	.000***
수정된 R <sup>2</sup> : .236 F: 11.728				

\*\*\*p&lt;0.001

## 3. Self-identity and School Class

“자아정체성은 학교수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에 대한 검증결과, p<0.001 유의수준에서 미래계획( $\beta=.160$ , t=3.659), 사회성( $\beta=.117$ , t=2.132), 자기수용( $\beta=.155$ , t=3.330), 사회적응력( $\beta=.133$ , t=2.788), 자율성( $\beta=.102$ , t=2.015)의 순으로 학교수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특성( $\beta=.071$ , t=.395)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부분채택 되었다.

Table 4. Self-identity and School Class

독립변수	종속변수	$\beta$	t	p
독특성	학교수업	.071	.395	.126
미래계획		.160	3.659	.000***
사회성		.117	2.132	.000***
자기수용		.155	3.330	.000***
자율성		.102	2.015	.000***
사회적응력		.133	2.788	.000***
수정된 R <sup>2</sup> : .412 F: 59.722				

\*\*\*p&lt;0.001

## 4. Self-identity and School Regulation

“자아정체성은 학교규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에 대한 검증결과, p<0.001 유의수준에서 사회성( $\beta=.176$ , t=4.015), 자율성( $\beta=.162$ , t=3.460), 독특성( $\beta=.153$ , t=3.210), 자기수용( $\beta=.127$ , t=2.683), 미래계획( $\beta=.115$ , t=2.486), 사회적응력( $\beta=.118$ , t=2.306)의 순으로 학교규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Table 5. Self-identity and School Regulation

독립변수	종속변수	$\beta$	t	p
독특성	학교규칙	.153	3.210	.000***
미래계획		.115	2.486	.000***
사회성		.176	4.015	.000***
자기수용		.127	2.683	.000***
자율성		.162	3.460	.000***
사회적응력		.118	2.306	.000***
수정된 R <sup>2</sup> : .239 F: 33.257				

\*\*\*p&lt;0.001

## V. Conclusion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아정체성과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자아정체성의 구성요인을 독특성, 미래계획, 사회성, 자기수용, 자율성, 사회적응력을 선정하였고,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으로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을 선정하여 이들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정체성과 학교규칙과의 관계는 자아정체성의 구성요인들 모두가 학교규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그리고 학교수업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신혜정(2007), 이종우(2010), 리우 페이페이(2013) 등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전체적인 가설검증 결과를 보았을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정체성의 수준이 높으면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의 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정립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정체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해서 기계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의 조력자는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교사들의 노력도 강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을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중학생 자녀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범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결과와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더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검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분야와 시사점은 실증적인 연구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 REFERENCES

- [1] Lim, Jong Uk. "The Relation Between th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and the Ego-identity of Adolescent in Multi-Cultural Familie." The Graduate School DaeguHaany University, p.13, 2010.
- [2] Ko, Yu Jung(2013). "Identity Conflicts and Its Resolution Method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Graduate School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p.2-3, 2013.
- [3] Bae, Sang Sik. "A Study on the Self-Identity Problem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Vol. 122, p.165, 2012.
- [4] Jung, Jung-hyun-KimSeon Mee. "A Comparative inquiry on Korean cultural identity between adolescents of international and Korean families." Journ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Vol. 20 No.4, pp.98-99, 2013.
- [5] Shin, Hye Jung.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6] Lee, Jong Woo.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the Linguistic Ability and the Ego-Identi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of Adolescent in Multicultural Familie." Th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10.
- [7] Liu, Fei-Fei. "The Effect of Self-Identity, Family Cohesion an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 With Chinese Mother and Adolescent With Korean Moth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3.
- [8] Park, Jeong Ok.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dual identity and social supports on school adaptations of th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The Graduate School International of University, p.7, 2012.
- [9] Cha, Woo Kyu. "Study on the National Identity and Moral Consciousnes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hungbuk." Journal of Ethics Philosophical Society, Vol. 15, p.18, 2011.
- [10] Kim, Eun Mi. "The Effects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Magic Education on Their Self-Ident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Graduate School Mokpo National University, pp.32-33, 2012.
- [11] Park, Jeong Ok.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dual identity and social supports on school adaptations of th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The Graduate School International of University, p.7, 2012.
- [12] Kim, Eun Mi. "The Effects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Magic Education on Their Self-Ident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Graduate School Mokpo National University, pp.44, 2012.
- [13] Choi, Moon Seong· Kim, Soon Ja. "Tasks for Moral Education to Establish Self-Identity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y, Vol. 19, 2009.
- [14] Park, Jin Woo. "The study for self identity form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pp.14-15, 2015.
- [15] Shin, Hye Jung.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16] Lee, Jong Woo.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the Linguistic Ability and the Ego-Identi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of Adolescent in Multicultural Familie." Th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10.
- [17] Liu, Fei-Fei. "The Effect of Self-Identity, Family

Cohesion an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 With Chinese Mother and Adolescent With Korean Moth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3.

[18] Lee, Jong Woo.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the Linguistic Ability and the Ego-Identi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of Adolescent in Multicultural Familie.” Th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10.

[19] Kim, Eun Mi. “The Effects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Magic Education on Their Self-Ident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Graduate School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2.

## Authors



Kap Lyong Park received the Ph.D. degrees of International Studies in Diaspora Studie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4 Dr. Park joined as the dean of the Department of Military

Public Officials at Songwon University, Gwangju, Korea, in 2011. He is interested in security awar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well as policy and adaptation of military service regarding to the children of those including their social integration.